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검증

최재훈¹, 김경운^{2*}

¹서정대학교 간호학과, ²다이동연구소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ae Hoon Choi¹, Kyeong Uoo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²Dai Dong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 3·4학년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을 측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41, p<.01$), 진로준비행동($r=-.270, p<.001$)과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44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B=-.364, p<.001$)을 미쳤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적 영향($B=.36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준비행동의 척도개발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by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o this end, each variable was measured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analyzed for 202 nursing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stress response showed a relatively low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241, p<.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270, p<.001$). On the other h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448, p<.001$). Second, the career stress response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364, p<.001$), and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but the interaction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369, p<.001$).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areer stress respons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finally verified.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developing a scal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ress Response,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Uoon Kim(Dai Dong Research Institute.)

email: kkuoon68@daum.net

Received March 8, 2024

Accepted May 3, 2024

Revised April 11,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서론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진로상담 장면에서 스트레스는 내담자에게서 평범하게 발견되는 부정적 반응 중의 하나이다. 비교적 흔한 반응이지만, 발생 초기에 시급히 개입해야 할 문제로 평가하는 이유는 진로와 관련된 특성 때문이다.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 중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휴학 또는 자퇴를 선택하거나 전공 전향을 위해 다시 입시 준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생애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입히는 중대사건이 될 수 있다[1,2].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고 학업을 지속해서 수행해나갈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의 특징이 나타난다[3].

진로스트레스는 대체로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취업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4]. 진로는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일인데 반하여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준비라는 특정 기간에 국한되는 반응으로 보기 때문이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로스트레스가 취업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또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 따른 불안, 초조, 긴장, 압박감, 우울, 위경련, 두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확인된다[6].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의 반응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7]. 스트레스의 원인에 중점을 둘 경우, 특정 원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전체 스트레스 수준으로 간주하는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온전히 진로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스트레스 원인보다 반응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반응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증상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8-10].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정서의 조화 또는 부조화에 관한 반응으로 불안, 좌절감, 걱정, 무력감, 고립감 등의 증상이며, 인지적 반응은 지각, 판단, 사고, 신념 등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며, 행동적 반응은 개인의 인지적 차이로 발생하는 의사소통 단절, 폭식, 거식, 불면증, 흡연 등의 증상을 말한다. 신체적 반응은 행동적 반응과 마찬가지로

로 개인의 인지적 차이로 인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소화불량,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헛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11].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근거로 스트레스 자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 또한 이에 기초하여 진로 문제가 원인인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 증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7].

간호대학생이 토로하는 주요 진로 고민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단순히 높은 취업률에 이끌려 전공을 결정하다 보니 전공 또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다[12]. 이는 비보건 계열 전공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보건의로 계열 전공생에게서 나타나는 진로 고민의 특징 중 하나이다[13]. 결과적으로 자기 가치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과정 없이 이뤄진 진로 결정으로 인해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취업과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많은 양과 고강도 학업, 치열한 성적 경쟁 등에 적응해야 하는 교육환경이기에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더욱 현저하다[14]. 이는 자신의 가치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판단하는 주체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공이나 직업 등 진로 선택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자기 적성을 발견하여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15].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과 자기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초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선택과 통제에 관한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에 가깝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선택한 전공이나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17]. 진로결정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 삶에 대한 예측 또는 기대를 전제하므로 자신의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향후 진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8].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스트레스의 요인이나 요인별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진로스트레스가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역상관성을 보인다[19,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는 진로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순수한 진로스트레스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스트레스 원에 의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이므로 진로스트레스 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다. 진로스트레스 원에 대한 부정적 의 강도가 높으면 진로스트레스 반응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21,22]. 이는 자신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부담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단순히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호하고 증대하는 대처방안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과 같이 의료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진로 문제 중의 하나가 준비 부족이다[23].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진로결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선택에 있어 체계적인 준비를 설명하는 개념이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태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차원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탐색, 결정, 실행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자기 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직업 세계 탐색 세 가지 행동 요소로 구분 지어 파악할 수 있다[23]. 즉,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과 관련한 것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할 수 있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 요소인 자기 이해 행동은 진로와 관계된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직업능력 향상 행동은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직업 세계 탐색 행동은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3].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며, 진로 지도와 상담 장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진로를 결정할 때 상당수 학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등한시한 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24]. 이로 인해 진로나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많은데 취업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에게는 진로준비행동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재효과를 보이기도 한다[25].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대학생 3·4학년생의 경우, 국가고시와 임상실습, 취업 준비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진로 고민의 심도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26]. 이 시기에 진로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취업 이후에도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에게 3·4학년은 진로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성이 확인되고 있다[28,29].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30].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부정적인 상관성을 보인다[19,31].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 준비과정에서 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으로 인해 유발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키며, 전공 만족도를 낮춰 진로 준비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한다[19]. 또한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지면 예민함이 나타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진로준비행동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견된다[32].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33]에서는 집단에 따라서 진로결정 효능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높지만 취업스트레스는 낮은 집단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반면에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진로 결정과 관계된 과제 수행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특성[16]은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손실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진로스트레스 상담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연구(2010년 이후)를 살펴본 결과 진로스트레스의 원인이나 취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33]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진로상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경기 북부지역 소재 3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 37명(18.3%), 여자 165명(81.7%)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110명(54.5%), 4학년 92명(45.5%)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의 경우 취업을 앞두고 진로상담이 많은 3·4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최소 표본 수를 정하기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으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F검정의 선형 다중회귀분석 중 R^2 증가량을 측정할 경우 효과 크기(f^2) .15, 1종 오류를 확인할 유의 수준 .05, 2종 오류를 확인할 검정력 95% 수준에서 통제변인 2개와 예측변인 3개 총 5개의 변인에 대해 138명의 적정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자료수집 과정에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202명

이 분석에 반영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진로스트레스 반응

유현주[7]가 대학생 대상의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정서·인지적 스트레스 반응 8문항, 행동·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7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정서적 스트레스(Emotional Stress) 반응은 내외적 자극 및 요구로 인해 유발되는 조화 및 부조화 정서, 인지적 스트레스(Cognitive Stress)는 내외적 자극 및 요구로 인해 개인의 지각, 상상, 생각, 신념, 가치, 판단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 행동적 스트레스(Behavioral Stress)는 내외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 차이로 유발되는 구체적인 행동 증상, 신체적 스트레스(Physical Stress)는 내외적 자극 및 요구에 대한 개인의 인지 차이로 유발되는 구체적인 몸의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진로스트레스를 원인 중심의 진로스트레스와 구별하여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명명하고 스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hronbach' α)는 정서·인지적 스트레스 .91, 행동·신체적 스트레스 .90, 전체 문항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 .95, .94로 나타났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5]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3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 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5개 하위요인별로 5개 문항씩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9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수정에 따른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각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KMO지수는 .716, Battlett 구형성 검증에서는 $\chi^2=976.312(df=36, p<.001)$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5개의 성분행렬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성분의 설명력은 78.42%로 나타났다.

이은진[3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α)는 자기평가 .83, 정보수집 .81, 목표선정 .85, 계획수립 .84, 문제해결 .74, 전체 문항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8, .82, .65, .76, .82, .82로 나타났다.

2.2.3 진로준비행동

최윤경과 김성희[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행동 10문항, 직업능력향상 행동 9문항, 직업세계탐색 행동 6문항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경과 김성희[2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α)는 자기이해 행동 .87, 직업능력향상 행동 .83, 직업세계탐색 행동 .86, 전체 문항 .91이며, 본 연구에서도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내적 합치도(α)가 각각 .93, .78, .72, .77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와 부호를 살펴보았다. 정적(+) 관계인 경우는 긍정적 영향, 부적(-) 관계인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Hayes[36]가 제시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신뢰구간에서 반복 표집하는 방법으로 표본 분포의 정규성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을 설정해 5,000회 반복하여 표집하는 방법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의 평균(M)을 .000으로 보았을 때 1단위의 표준편차를 더하고 뺀 값을 각각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 평균 집단,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집단별로 조절효과(B)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조사의 내용에 대해

구두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내한 후 당사자의 서면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진행 중에도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중단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다. 수집 자료에는 이름이나 학번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일절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료처리 후 봉인하여 연구자 외 접근이 통제된 곳에 보관하였다. 자료는 수집 후 24개월 이내 안전한 방법으로 파쇄할 예정이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포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의 평균이 1.85(\pm .67)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13(\pm .65), 진로준비행동은 3.85(\pm .61)로 두 변인 모두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기술통계 내용을 보면, 본 연구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데 반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높은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변인의 분포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의 첨도와 왜도 변량이 절댓값 2 이하를 가리켜 정규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wness	kurtosis
Career stress response	1.85	.67	1.382	.17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13	.65	-.25	-.6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85	.61	.06	.29

3.2 상관분석

변인 간의 상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41, p<.01$)과 진로준비행동($r=-.270, p<.001$) 모두에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 반

응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가 약하고, 조절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도 약한 상관계수를 보여 세 변인의 상관계수는 조절효과 분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조절변인 또는 종속변인과의 상관계수가 강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중재하는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조절효과의 해석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28]. 진로스트레스와 달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r=.448, p<.001$)를 보였다. 이는 두 변인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1	2	3
1. Career stress response	1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41**	1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70***	.448***	1

** $p<.01$, *** $p<.001$

3.3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7]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 프로그램의 모델1을 적용하여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독립변인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36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156, p=.118$).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항($A \times B$)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369, p<.001$)을 미쳤고, R^2 의 증가량($R^2=.079,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에서 산출된 회귀계수(B)를 살펴보면 부호가 각각 음수, 음수, 양수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대립적인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건부 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oderation effect analysi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	SE	t	LLCI	ULCI
Constant	3.686	.044	83.521***	3.598	3.773
Career stress response (A)	-.364	.056	-6.557***	-.474	-.25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	-.156	.099	1.574	-.352	.040
A×B	.369	.101	3.659***	.169	.569
Test of highest order unconditional interaction(A×B)		ΔR^2	F		p
		.079	13.390		.000
Conditional effects	B	SE	t	LLCI	ULCI
M-1SD (-.473)	-.539	.077	-7.005***	-.692	-.387
M (.000)	-.364	.056	-6.557***	-.474	-.254
M+1SD (.473)	-.189	.069	-2.728**	-.327	-.052

LLCI=95%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95%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 $p<.01$, *** $p<.001$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로 나타나는 조건부 효과가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집단은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M+1SD), 중간인 집단(M), 낮은 집단(M-1SD)과 같이 세 집단으로 나눠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B)를 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B=-.189$ 이며, 중간 집단은 $B=-.364$, 낮은 집단은 $B=-.539$ 로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의 크기가 작아졌다.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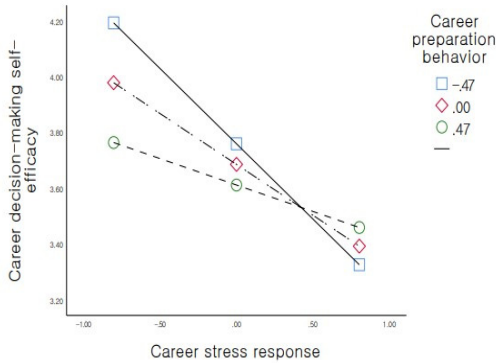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respons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만 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낮은 집단 모두 직선이 우하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클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크며, 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집단은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클 때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덜 경험하더라도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하면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반면에 진로준비행동이 충분하면 진로 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더라도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진로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스트레스를 원인 중심이 아니라 반응 중심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진로스트레스의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인 중심일 경우 여러 원인 중 특정 원인을 전체 스트레스 수준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절효과는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따라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에 앞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17,19]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역반응으로 수준이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인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원보다 스트레스 자체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으며,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약화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반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 걱정, 좌절감 등 부정적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진로 문제로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부적응 반응을 보인 대학생들은 진로 준비에 요구되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7,3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0.2점대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며, 통계상으로 조절효과 분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 반응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거나 고조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진로준비행동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의 강화요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34]. 이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같이 학년과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 낮은 집단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의 영향에 의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간과 낮은 집단과 비교해 진로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적으며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보이는 조절효과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상담(career advising)의 주요 목적은 진로결정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진로의사결정에 도달하도록 교육 혹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9].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은 간호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진로결정의 문제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수정하고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결정의 주요 문제상황 중 하나는 충분한 진로탐색 과정 없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해 진학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간호대학생 대다수가 수학능력시험 이후(50.3%)나 고등학교 3학년 때(34.2%)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40], 전공 선택 주요 동기 또한 취업 가능성과 내신 고려(58.5%)인 것으로 나타난다[41]. 이는 대학 생활과 학업 부적응뿐 아니라 취업 후에도 이직과 결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42]. 따라서 상담은 생애 전반을 고려한 자기 계발에 주안점을 둔 진로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직업 세계 탐색을 수반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실천이라는 점에서 간호대학생 진로상담에 효과적인 개입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충분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하는 간호전문직관

과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3]. 셀프리더십은 자기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변화하여 그 영향력이 자기에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행위적, 인지적 전략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44], 진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합리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5].

간호대학생이 겪는 진로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학업이나 대학 생활 적응, 국가고시 준비, 취업 준비 등에 따른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빈도와 강도도 일반 학과와 비교해 높다는 점이다[46].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정서·인지 스트레스 반응과 신체·행동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낮아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발생할 수 있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의 유효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진로스트레스 반응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폭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크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3·4학년 재학생으로 대부분 임상실습 경험이 있으며 국가고시와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술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평균적으로 진로스트레스 반응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생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준비행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초기에 시행해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은 3·4학년 시기에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가 본격화되므로 이전에 확고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진로 문제가 취업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대처방안으로 진

로준비행동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반응을 고려하여 진로상담 요청이 많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간호학과의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신입생도 교육 대상이 되고 있어 진로스트레스 반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를 위해 전 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반응은 고강도의 학업 수행과 국가고시 준비 등과 같이 간호대학생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개발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E. H. Le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6, pp.178-18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6.178>
- [2] H. J. Choi, J. k. Im,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1, pp.61-72,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61>
- [3] S. M. Ahn, K. H.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555-56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555>
- [4] B. Y. Choi, B. R. Kim, A. R. Kim, S. N. Chang, S. H. Jung, S. M. Lee,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perceiving happenstance on career stress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873-1891,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873>
- [5] Y. J. An, J. Y. Seo, "The effects of work hope and career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1, pp.55-81, 2013.
- [6] B. J. Lee,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psychiatric symptoms",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2, pp.227-249, 2012.
DOI: <https://dx.doi.org/10.33071/ssricb.36.2.201212.227>
- [7] H. J. Yu, *A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stress, academic burnou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gener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174, 2019.
- [8] B. M. Gadzella, "Student-life stress inventory: identification of and reaction to stressors", *Psychological Reports*, Vol.74, No.2, pp.395-402, April 1994.
DOI: <https://doi.org/10.2466/pr0.1994.74.2.395>
- [9] S. Setterlind, G. Larsson, "The stress profile: a psychosocial approach to measuring stress", *Stress Medicine*, Vol.11, No.1, pp.85-92, 1995.
DOI: <https://doi.org/10.1002/smi.2460110116>
- [10] T. S. Kristensen, H. Hannerz, A. Hogh, V. Borg,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A tool for the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the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Vol.31, No.6, pp.438-449, January 2006.
DOI: <https://doi.org/10.5271/sjweh.948>
- [11] K. B. Koh, J. K. Park, C. H. Kim,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9, No.4, pp.707-719, July 2000.
- [12] H. Y. Song, S. H.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628-640,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9.628>
- [13] J. H. Park, "The effect of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257-264,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9.257>
- [14]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3, No.2, pp.122-131, May 2015.
DOI: <https://doi.org/10.5807/kjoh.2015.24.2.122>
- [15]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No.2, pp.179-189, April 2012.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1004.x>
- [16] J. Y.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Feb.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17] J. U. Kim, H. H.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2, pp.741-766, 2016.
- [18] Y. J. Joo, K. Y. Go, Y. J. Jung,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3, pp.65-83, 2015.
- [19] H. S. Moon, Y. 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3, pp.91-119, 2020.
DOI: <https://doi.org/10.35273/jec.2020.10.3.005>
- [20] M. R. Le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767-8775,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12.8767>
- [21] B. Y. Choi, B. R. Kim, A. R. Kim, S. N. Chang, S. H. Jung, S. M. Lee,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perceiving happenstance on career stress,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873-1891, 2011.
DOI: <https://dx.doi.org/10.15703/kjc.12.5.201110.1873>
- [22] S. Y. Park, J. W. Kim,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9, No.2, pp.119-148, 2021.
DOI: <https://dx.doi.org/10.35151/kvci.2021.29.2.006>
- [23] Y. J. Choi, “Exploration of latent factors of career indecision for conceptualizing career difficulties in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175-193, 2015.
DOI: <https://dx.doi.org/10.15703/kjc.16.3.201506.175>
- [24]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085-2097, 2012.
DOI: <https://dx.doi.org/10.15703/kjc.13.5.201210.2085>
- [25] S. J. Joh, “The development of a career coaching system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Vol.11, No.4, pp.5-29, 2018.
- [26] S. W. Hwang, H. S. Cha,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5, pp.131-140,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5.131>
- [27] J. T. Jeo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44-352, September 2016.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6.22.4.344>
- [28] J. C. Lee, A. J. Hong,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5, No.3, pp.215-245, 2013.
DOI: <https://doi.org/10.18211/kihraq.2013.15.3.009>
- [29] J. U. Kim, S. S. Park, “The mediating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6, No.3, pp.123-141, 2013.
- [30] Y. A. Cho, J. U. Jeong,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129-150, 2017.
- [31] H. J. Im, S. N.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tress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Vol.45, No.2, pp.21-30, 2020.
- [32] H. J. Shin,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3, No.2, pp.349-373, 2016.
DOI: <https://dx.doi.org/10.16983/kjsp.2016.13.2.349>
- [33] M. J. Kim, H. J. Yang, “Cluster typ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95-110, 2015.
DOI: <https://dx.doi.org/10.15703/kjc.16.1.201502.95>
- [34] M. R. Le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767-8775,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12.8767>
- [35] E.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142, 2001.
- [36]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p.732, Guilford, 2022.
- [37] K. W. Kim, Y. H. Cho, “Mediation and Moderation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4, pp.197-2185, 2011.
- [38] S. J. Lee, J. H. Yu,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Vol.48, No.2, pp.35-63, 2009.
- [39] Y. H. Lee, “A systematic career advising model and strategies for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Education Review*, Vol.24, No.3, pp.193-204, 2022.
DOI: <https://doi.org/10.17496/kmer.2022.24.3.193>
- [40] S. J. Park,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259-267, 2012.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2.18.2.259>
- [41] E. K. Joo, J. W. Han,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1, pp.2563-2578, 2021.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2.1.181>
- [42] S. Y. Son, J. Y.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domestic main counseling journal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3, pp.149-170, 2017.
DOI: <https://dx.doi.org/10.15703/kjc.18.3.201706.149>
- [43]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44-352, 2016.
DOI: <https://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44] C. C. Manz, P. S. Henry,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p.255, Berrett-Koehler Publishers, 2001.
- [45] W. H. Hwang, C. S. Youn, “A study on the moderat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29, No.5, pp.74-98, 2014.
- [46]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80-291, 2015.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최 재 훈(Jae Hoon Choi)

[정회원]



- 2000년 2월 : 대진대학교 법학사
- 2013년 9월 : 대진대학교 법학석사
- 2018년 12월 : 서울한영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 2000년 2월 ~ 현재 : 경인일보 편집국 지역사회부 부장
- 2021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스트레스, 분노사고, 심리적 안녕감, 심리치료 상담

김 경 윤(Kyeong Uoo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08년 1월 :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간호학 박사후
- 2016년 3월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3년 2월 : Dai Dong Research Institute 대표

〈관심분야〉

스트레스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보건의료서비스